악인은 잠자리를 안 가린다

(창18:20~33)

26.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오십 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27.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28. 오십 의인 중에 오 명이 부족하다면 그 오 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사십오 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29.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사십 명을 찾으시면 어찌 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사십 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30.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삼십 명을 찾으시면 어찌 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삼십 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악인은 잠자리를 안 가린다.>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헝가리의 수도가 부다페스트 아닙니까? 저는 헝가리의 부다페스트를 짧게 방문한 뒤로 벌써 20년이 넘는 세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부다페스트를 두고두고 기억하는 이유가 하나 있어요. 유럽에서 유학하는 장로회신학대학교 동문들이 재 유럽동문회를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유학생들이 다 가난하지요. 그래서 동문회에서도 좀 지원이 되고, 유럽 곳곳에 흩어져서 동문들 중에서 목회를 하시는 분들이 주축이 되어서 경비를 많이 대십니다.
프랑스나 스위스, 스웨덴에서 동문회를 하면 각자가 자기 차를 타고 옵니다. 그러면 한 곳에 모여서 한 2박 3일 동안 근처 여행을 하게 되는 중에, 헝가리 부다페스트에 가서 하룻밤을 자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깜짝 놀란 거예요. 그때가 한 37살쯤 되었을 때인데, 그 이후로는 부다페스트를 잊지 못해요. 부다페스트의 한 호텔에 방을 잡아줘서 집사람하고 같이 잤는데, 푹 자고 일어난 것이 뭐가 대단한 일이냐?
제 기억으로는 37년 만에 그렇게 푹 잤던 게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잠자리만 바뀌면 잠을 못 잡니다.
장로회신학대학을 학부 4년, 신대원 3년, 7년 동안 다녔는데 학기를 시작하기 전 매 학기마다 2박 3일 동안 사경회를 합니다. 7년이니까 14번을 간 것인데, 14번 사경회를 가서 마지막 날

쯤 되면 코피를 흘리지 않았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계속해서 사경회 순서가 이어져 이틀 간 잠을 못자고 강행군을 합니다. 밤에 잠을 자야하는데 잠을 못 잡니다. 마지막 날에는 코피가 터져버리는 거예요. 자주 여행을 다니지도 못했습니다만 4~5일 여행을 하고나면 몸무게가 7~8kg씩 빠져요. 못 먹어서가 아니고 잠을 못 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 생애 처음으로 잠자리가 바뀌었는데 부다페스트에서 잠을 푹 잔거예요.
여행 다녀보시면 아시겠지만 잠을 제대로 못 자면 여행이 유쾌하질 않습니다. 몽롱하니까 밥도 맛이 없고 속이 더부룩해서 생리현상도 편안하지 못하고 아주 여행이 불쾌해집니다. 잠을 잘 자고 일어나야 상쾌하고 아침도 많이 먹고 생리적인 일도 잘 보고. 그러고 나서야 여행도 여행다워지고 재미있는데 이게 영 아니라는 겁니다.
헝가리 부다페스트는 도나우 강이 흐르고, 동유럽의 파리라고 부를 만큼 그렇게 아가씨들이 미인이에요. 세계적인 모델들이 헝가리에서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 것 때문에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잠자리가 바뀌었는데도 잠을 잘 잤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 이야기가 지금 왜 나오느냐?
오늘의 본문이 유명한 본문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소돔 성을 멸망시키려고 하시는데, 아브라함이 또 하지 않던 모습을 보입니다.
아니 따지는 것을 모르는 사람인 줄로 알았는데, 하나님께 항의하듯이 꼬치꼬치 따지고 달려드는지 25절에 뭐라고 하느냐?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라고 하면서 훈계조로 말을 합니다. 마치 세상 임금에게 신하가 직언을 하듯이 하는데 이게 가능한 이야기냔 말입니다. 세상 임금이야 사람이니 잘못할 수도 있어서 신하의 직언이 필요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데 직언하듯이 이렇게 합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아브라함에 대해서 어쩌면 단 한마디의 싫은 소리를 안 하시느냐는 것이에요. 사라도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도무지 지적을 하시지 않습니다. 계속 맞장구를 치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10명까지 내려가잖아요.
‘오십 명 의인이 있어도 그 의인들을 소돔 성의 악인들과 함께 멸하시겠습니까? 그건 공평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공의롭다는 여호와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라고 하는데 ‘좋다. 50명만 있으면 내가 멸망시키지 않는다.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만 있어도 멸망시키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주 훌륭한 신앙의 명제가 여기서 나온 것 아닙니까?
‘세상 사람이 망하는 것은 죄가 많아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의인이 없어서 망한다.’

죄가 많은 것이 의인이 없는 것이니까 이게 같은 말 아니냐고 하지만 전혀 다릅니다.
죄가 많아서 망하는 게 아니라 의인이 없어서 망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은 죄인이 많은 가운데서 죄를 보시지 않습니다. 죄를 보시면서 멸망시키겠다고 결정하지 않으십니다.
의인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눈길은 의인을 향해 있기 때문에, 마음의 눈길을 두실 수 있고 마음의 눈길이 머물 수 있는 의인들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보시지 않고 의인을 보십니다.
지금 대홍수 때처럼 인류를 멸망시키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십자가에 달려서 의를 이루신 예수님 한 분을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멸망시키지 않으십니다. 그 의인인 예수님 한 분으로부터 퍼져나가는 의의 역사를 가능한 것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멸망시키지 않으시는 것이지요. 죄를 보시는 것이 아니고 의인을 보십니다.
의인을 찾으셔서 당신의 눈길을 두시고 마음을 두실 수 있는 곳을 발견하시면 그 주변에 죄가 창궐해도 멸망시키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팎으로 그 누구도 이 죄의 장벽을 허물어뜨릴 수 있는 아무런 의의 역사가 없음으로 결정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도대체 여기서 말하는 의인과 악인이 누구며 어떤 사람이냐가 우리의 궁금증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인간세상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셔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멸망시키지 않고 내버려두시는 이유 중에 내가 속한 사람이냐 아니냐? 나까지 포함하고 있는 의인 그룹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멸망을 안 시키시는 것이냐? 이걸 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악인이 누구고 의인이 누군지를 비유적으로 말하면, 의인은 지독스럽게도 잠자리를 가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육체로 이 세상을 살 때와는 다른 거예요. 육체로 이 세상을 살 때에는 잠자리를 안 가리는 것이 얼마나 여행을 유쾌하게 만듭니까?
비행기에서도 자고, 기차에서도 자고, 버스에서도 자고 아무데서나 잡니다.
여행을 할 때에는 이동하시는 시간이 있으면 무조건 자는 것이 최고로 좋고, 음식은 무조건 잘 먹는 것이 좋고, 화장실을 보면 무조건 일을 보고 나오는 것이 좋은 겁니다. 언제 어느 때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잘 하면 여행이 즐거워지는 것인데, 이 마음의 차원으로 돌아와서 생각하면 완전히 180도로 바뀝니다.

마음의 차원을 왜 여행으로 생각할 수 있느냐?
우리 육체가 이제까지 집을 중심으로 돌아다닌 거리를 마일리지로 따지면 몇 천, 몇 만 km쯤 될까요? 아무리 많아도 마음이 왔다 갔다 한 거리에 비하면 마음은 육체보다 몇 천, 몇 만 배를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지금도 아는 사람이나 애인이나 형제가 미국에 있다면, 마음이 미국 다녀오는데 몇 초 안 걸려요. 육체가 미국을 가려면 15시간 이상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마음은 더군다나 시간도 왔다 갔다 해요. 미래에 내가 부자 될 상황을 생각하고 있으면 마음이 벌써 미래로 간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많이 돌아다니기 때문에, 마음에도 잠자리라고 하는 이야기가 적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뭐가 잠자리입니까? 마음이 가서 머무는 대상이 있고, 머무는 곳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악인이 누구냐?
이 마음의 잠자리를 가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아무데나 가서 딱딱 달라붙어요.
의인이 누굽니까?
아무데나 가면 도대체가 불편해서 거기 머물러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사업하는 사람이라면 사업에 가서 마음이 붙을 것 아닙니까? 악인은 그 사업이라고 하는 곳에 아주 깊이깊이 숙소를 정하고 거기서 잘 머뭅니다. 그런데 의인은 자기가 하는 사업인데도 사업에 마음이 가면, 잠자리를 너무 가려서 밤새 뒤척이는 사람인 것처럼 마음 놓고 평안하게 머물지를 못하는 것이 바로 의인입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가 좀 더 깊이 해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기도문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기도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의인인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이 말에는 굉장히 많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내가 사업을 한다면 사업하다가 재정적으로는 망해도 좋은데, 한 가지 소원이 있사오니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가 가장으로 가정에서 생활할 때에 좋은 남편 되지 못하고, 좋은 아빠 되지 못할 수는 있지만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자식을 기를 때에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자리에 세울 수 없을지라도 다만 악에서 구해주시옵소서. 내가 병들 수도 있지만 질병에서 구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다만 악에서 구해주시옵소서. 가난할 수도 있고, 병들 수도 있고, 사람들이 볼 때에 별 볼일 없는 사회적인 위치에 있을 수도 있지만 그 모든 것에서 구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다만, 오직(only) 악에서 구해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의인이 드리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 악이 뭐냐?
바로 마음이 잠자리를 가리지 않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내가 사업에 가서 마음이 머물고, 숙소로 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내가 사업 상태의 선악을 판단하고, 호, 불호의 판단력을 따라서 내 마음이 느낌을 먹게 됩니다. 마치 숙소에 들어가면 호텔에서 제공하는 음식을 먹듯이 느낌을 먹게 돼요. 느낌을 먹으면서 씹습니다. 씹고 소화시키는 과정이 생각으로 나타나고 계획으로 나타나고 소원으로 나타납니다. 지금 상황의 호, 불호의 느낌을 받고 판단합니다.
좋으면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생각하고 계획하고 소원합니다. 나쁘면 개선시키기 위해서 생각하고 계획하고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치 숙소에서 음식을 먹고 나면 그 다음날 아침에 생리적인 현상을 해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싸요.
뭘 싸느냐?
말을 싸고, 행동을 싸게 됩니다.
마음이 여행을 다니는 것이 우리 육체와 똑같은 식으로 삶을 살아갑니다.
머물면 느낌을 먹습니다. 느낌을 먹고 나면 소화를 시키는 과정에서 생각을 하게 되고, 계획을 하게 되고, 소원을 갖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싸게 됩니다.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싸는 거예요. 다 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에 정해주신 잠자리는 딱 한군데예요. 하나님 품 밖에는 없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품 안에 우리 마음이 가서 머물고 잠자리를 정하고 자는 겁니다.

그런데 타락 이후에 악인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이 잠자리 이외에 아무데서나 잠을 잘 잡니다.
자식을 기른다면 자식에게서 머무릅니다.
의인의 특징은, 도대체 그 자식을 마음으로 붙잡고 자식의 상황에 대해 느낌을 받고, 그 느낌을 자기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계획하면서 씹고 생각하고 소화시켜서 자식에 대해서 말하고 행동하며 싸는 일을 못해요. 이게 의인이라는 겁니다. 절대로 그렇게 못해요. 마음이 거기에 머물러서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싸지도 못해요. 이게 바로 의인이에요.
오직 하나님께 가 있을 때에 마음의 평안함을 느낍니다.
어거스틴이 “하나님 품 안에 안기기 전에는 내가 평안을 가질 수가 없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의인의 특징입니다. 다 잊어버려야 해요. 마음에서 그것들에 대해서 죽고 그것들을 떠나야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이 일어난 것 아닙니까?
의인들의 특징은 십자가 사건을 붙잡고 하나님께로 가버립니다.

그럼 이들은 어떻게 사느냐?
내가 자식이라는 호텔에 가서 머물지 않아요. 거기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거기서는 아무 생각도 못하고 밤새 뒤척이다가 십자가 붙잡고 하나님께로 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식에

대해서 생각이 있으시거든요. 그 하나님의 마음에 접속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접속이 될 때에 제일 먼저 나타나는 특징이 의인을 향한 갈망입니다. 똑같이 하나님만을 잠자리로 생각하는, 마음이 머물러야 될 잠자리로 생각하는 의인을 찾으려는 욕망이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처럼 강렬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가서 머물고 있는지, 하나님을 잠자리로 삼고 있는지 그 증거가 뭐냐?
내 마음이 이 땅위에서 의인을 갈망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한 마디로 그의 마음의 잠자리를 하나님으로 정하느냐 아니냐에 중점을 둔다는 거예요.
자식을 길러도 그 자식이 의인되는데 마음을 두는 것이고, 회사를 경영해도 직원들이 마음을 어디에 두고 생활하고 있느냐를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부 자기 월급에만 마음을 두고 있다면 악인들만 데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잠자리를 어떻게 정하느냐?
잠자리에서부터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내가 마음을 두고 있는 곳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시작하고 내 계획을 시작하고 이게 다 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접속하게 되면 나타나는 특징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의인을 갈망하시는 그 마음과 접속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으로 줄어들잖아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일부러 아브라함의 입에 당신의 속마음의 내용을 담아주시는 것입니다.
소돔을 보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입에서 나온 대로 '제발 의인이 50명만 있어라' 그러시다가 '아니야, 45명만 있어라' 아브라함을 만나기 전에 소돔의 상황을 모르시겠습니까? 이미 다 파악하셨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그거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마음을 아브라함의 입에 담아내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마음이 하나님의 품에 잠자리를 삼고 들어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과 접속 되었을 때에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해 내면서 살아갑니다. 이게 바로 의인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식이고 뭐고 내가 가서 거기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께 머물렀는데, 자식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서 거기에 접속하는 겁니다.
지금 소돔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에 아브라함이 접속합니다.
소돔에 대해서 어떤 마음의 과정을 하나님이 거치셨느냐?
'50명, 45명, 40명, 30명이었다가 30명도 없으니까 속마음으로 제발 20명만 있어라. 그러셨던 거예요. 20명도 없으니까 제발 10명만 있어라.' 그런데 없는 거예요.

결국은 의인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될 롯조차도 삶을 살면서 소돔 내부로부터 의인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기회가 말살되어 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롯은 아브라함이 의인이므로 그 연관성 안에서 구출을 받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의인으로 살아가야 돼요.
결국 의인이 뭐예요? 죄를 아는 거예요. 다만 악에서 빠져나가기를 소원하는 겁니다.
죄가 뭡니까? 잠자리를 아무데나 정해놓고 자는 거예요.
원주에 가면 우리나라의 유일한 가축테마파크가 있습니다. 돼지문화원이에요.
이 돼지문화원의 원장님의 인터뷰 내용을 읽었어요.
기자가 여러 가지 물어보는 질문 중에 "돼지가 더럽다고 하는 인상을 대표하고 있지 않습니까?"라고 물었더니 이 원장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편견입니다. 돼지는 똥자리, 잠자리를 엄격하게 가립니다. 돼지는 배가 터지도록 먹지도 않습니다. 젖을 먹을 때에도 자기가 먹던 젖꼭지에 가서 질서정연하게 젖을 먹습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놀랐어요. 우리는 돼지우리가 더럽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것은 화장실을 따로 안 만들어줬으니까 더러운 것이지, 똥자리를 정해놓고 싼다는 거예요. 잠자리를 정해놓고 잔다는 겁니다. 돼지우습게보면 안 돼요. 악인이라는 존재가 돼지보다 못한 거예요.
우리가 다 악인 아닙니까?
내가 돼지보다 못한 거예요. 잠자리를 가리지 못해요. 똥자리를 가리지 못해요. 무슨 말을 해야 되고, 무슨 행동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말과 행동이 다 잠자리를 정하는 것이고, 먹는 과정이 생각이고 계획이거든요. 생각과 계획의 소화과정을 통해서 싸는 과정이 나타나는데, 이 말과 행동을 쌀 때에 어디에 싸야 될지를 모르고 아무데나 막 싸요. 그러니까 자식에 대해 말을 싸고, 행동을 쌀 때에 내 속에 악과 죄가 그대로 자식에게 다 묻어나는 것이고, 내가 사업을 한다면 내 악과 죄가 다 묻어나는 거예요. 왜? 거기에 대고 싸서는 안 될 내 생각과 행동을 싸대니까.

그런데 의인은 잠자리를 정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과 접속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19절에서 "여호와의 도"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과 여호와의 길이 있습니다.
자식이면 자식에 대한 여호와의 길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마음에 접속이 되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싸게 되는데, 싸게 되는 것은 오물을 싸는 것이 아니라 벌이 설탕을 먹고 꿀을 싸듯이 하나님의 뜻을 싸는 겁니다. 이렇게 잠자리가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이 어디에 가서 머물고 있느냐? 지금 무슨 생각을 합니까? 그 생각을 왜 해요?
그 생각한 다음에 말하고 행동할 것이지요.

어디에 대고 아무데나 막 싸고 그래요? 돼지도 그렇게 안 산다는데, 돼지도 잠자리와 똥자리를 가린다는데 우리가 돼지만도 못해서야 되겠습니까?

무조건 십자가를 붙잡아야 돼요.
왜 붙잡아요?
마음이 이 땅의 무엇엔가 잠자리를 잡고 머물려고 할 때에, 십자가에서 그것에 대해 죽고 마음은 부활하신 주님 따라서 하나님아버지 품만을 숙소로 정해서 거기서 잠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평안을 느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붙잡고 아버지 품에 들어가서 잠이 들 때까지, 평안을 느낄 때까지 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마음이 접속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죠. 하나님이 마음이 느껴지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이 그대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소돔에 대해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의 생각이 아브라함과 접속이 되면서, 하나님이 소돔과의 관계에서 걸어왔던 길을 아브라함이 입으로 토해내는 것이거든요. 이게 바로 꿀이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대로 접속이 되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따지듯이 달려드는데도 그냥 그대로 놔두시는 거예요. 당신의 소돔과의 관계에서 변해 온 속마음의 과정을 그대로 아브라함의 입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삶이 바로 죄 많은 우리들이 십자가를 통해서 의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결과로서 나타나는 그런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십자가로 내게 정해진 단 하나의 잠자리를 지키고 가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무엇보다 잠자리를 가리게 해주셔서, 마음이 머무는 곳과 마음이 머무는 대상이 어디인가를 가려내며, 이 세상 그 어떤 것에도 머물지 않기 위해 십자가로 날마다 순간마다 죽어서 유일한 잠자리인 아버지께로 가고, 아버지께로부터 주어지는 생각과 말을 이 세상으로 내보내면서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